

돌아오는 농촌, 떠나지 않는 농촌¹⁾

류 새 한²⁾

(주)생태조사단 기업부설 두회자연환경연구소

머리말

농촌은 변하고 있다. 아니 오래 전부터 변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인구 중의 과연 몇 퍼센트나 현재 농촌에 살고 싶어 할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촌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마저 모두 '도시로' 가려고 한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있는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말이 전 국민의 머리 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농촌에 가면, 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며, 이미 폐가로 변한 빈집들도 많고, 그냥 허물어진 채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많은 분교들이 폐교되었으며, 어린 아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기존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농촌에 남아 있다면 10년, 20년 후에는 과연 누가 농촌에 있을지 의문스럽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특히 20~49세의 젊은 농촌의 여성들이 대단히 많이 도시로 이동하였다. 어느 연구결과에 의하면 1960년 이후 1992년도에 이르기까지 지난 32년 기간동안 국민소득이 1% 증가함에 따라

서 농촌여성이 667명씩 감소되었다는 사실이 단순회귀분석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한다.



<사진> 농촌의 자연환경.

농촌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다. 도시와 마찬가지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농촌은 도시민들에게는 녹색 공간과 식량자원을 제공하고 환경 등을 보전하며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눈으로 쉽게 확인되는 도시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지만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 즉, 농업과 농촌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있어 보이지 않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Returning to Rural Communities, Staying in Rural Communities

2)RYOU, Sae-Han, Korea Ecosystem Service Co., Ltd., Doohee Institute Ecological Research,
E-mail: bossryou@kes.re.kr

다음은 한 학기 동안 농촌 환경이란 교과목을 강의하며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농촌(農村)'이란 공간을 국민의 공유자원으로 인식하여 논, 밭, 산림, 잡목림 등이 가지는 경관적, 생태적, 더 나아가 문화적인 농촌의 가치를 파악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농촌상을 구상하고자 다음의 주제로 학생들과 토론한 것에 대한 요약이다.

돌아오는 농촌, 떠나지 않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 잘사는 농촌이 되려면...

농촌 환경이란 농촌의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뜻한다. Green(1981)은 농촌은 종교적, 미적, 문화적 및 과학적 가치, 자원의 보고 그리고 생태적인 균형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그 어느 것 못지않게 소중히 보존해야 할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농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관점에서 문제가 많다. 이러한 농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 생산성증대를 통한 소득수준 향상에 주력했으나, 도시의 산업화에 따른 소득격차는 점점 더 커져 갔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 옛날 못 먹고 못살던 시절, 부모님 모시고 농사짓던 형은 대대로 내려오는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는 동생만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희생해 가며 열심히 농사지어 동생을 도시로 내보내 공부시켰다. 세월이 흘러 동생은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배우지도 못하고, 동생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형은 지금도 조상의 산소를 지키며 가난만을 답습하고 있다.

오늘날의 농촌 현실은 동생을 열심히 뒷바라지했으나 이젠 고향을 지키는 보람도 명분도 잃고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동생만을 바

라보는 열등감만 남은 형의 심정과 같은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마치 구질구질한 옛 신과 드라마를 보듯 우리는 농촌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가? 'old-fashionable'이 '촌스럽다'와 동의어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굳이 '촌'을 들먹이며 우리의 '촌'을 비하하고 있는지, 우리의 심리적 기저에 깔려있는 농촌의 이미지는 어떠한지를 먼저 짚어 낼 수 있어야 쓰러져가는 농촌을 살릴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고도성장의 수혜를 누려온 도시민·기업인들은 형의 뒷바라지 덕분에 부를 이뤘으니 고향을 지키고 있는 형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형을 위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몇 십 년 전의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떠올리면 도시민들은 농촌에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농촌에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장 나부터가 그네들 살림살이는 그네들 것이고, 우리의 살림살이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인 것이다.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사회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진 우리의 사고방식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물음표를 던질 때가 왔다.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많은 농촌사람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우리는 당장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핑계로 이를 무시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사회는 도시와 농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사는 곳이란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 봐야 할 때가 되었다.

문명의 이기와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노동력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자본의 대두와 산업혁명은 급속도의 경제 발전을 가져왔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이촌향도현상이 나타났다. 전 세계적 대세가 '자본획득'이라는 목적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고, 국가는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위하여, 사회는 자기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개인은 개인의 경제적 만족, 교육을 위하여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렇듯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개발이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경제개발을 위해서, 개인의 경제적 만족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부를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는 부를 축적하기가 어려우며, 혹시라도 흉작이 되거나, 자연재해라도 생기게 되면 부를 축적하기는 커녕 빚더미에 올라앉기 마련이었다. 또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단순 노동에 불과하고, 육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며, 돈도 되지 않는 일이며, 문화적 기회도 가질 수 없어서 도시에 사는 사람에 비해 생활의 질도 낮다고 생각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의 편견과 한 사회의 정책, 그리고 한 세계의 이념이 사람들로 하여금 농촌을 떠나게끔 한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농촌과 도시의 위기는 또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농촌이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어떻게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나아가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시장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어 그간의 ‘농업=생산’, ‘농촌 활성화=농가소득 증대’라는 고정관념과는 다른 발상이 필요하다. 시대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면 그나마 남아있던 국내 농업의 기반마저 붕괴하게 되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의 관점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들이 농촌에서 사는 것을 기피하는 가

장 큰 이유는 균형적이지 못한 국토의 개발로 농촌에서는 교육이나 문화의 혜택을 받기 어렵고 교육이나 문화생활을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하려고 해도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 주민들이 인근 지역에서 교육과 문화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국토 전체를 도시화 할 수는 없으므로 농촌에서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교육 혜택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통신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농촌의 학생에게 지원이나 할인을 해 준다거나 면 단위로 공영 공부방을 설치하여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문화생활은 개인의 요구가 각각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교양을 면사무소 단위로 강의를 한다거나 지역 국립대학과 연계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양 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대중의 힘에서 비롯된다. 현재의 사회는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 밖에는 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할 것 없으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 뭐”란 대사를 텔레비전 속 드라마에서 흔히 접하며, 우리들 생각 속에 농업은 하찮은 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모순으로 인해 사람들은 농촌에서 살기를 거부하며 도시에서의 물질적이고, 익명성이 판치는 사회에서 살기를 선호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의 하나로 광고를 생각해 본다. 공익광고에 농촌에 관한 홍보를 많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고나 홍보의 효과는 절대 무시 못 한다. 공익광고에서 인기 스타를 앞세워 홍보에 주력한다면 농촌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바뀌고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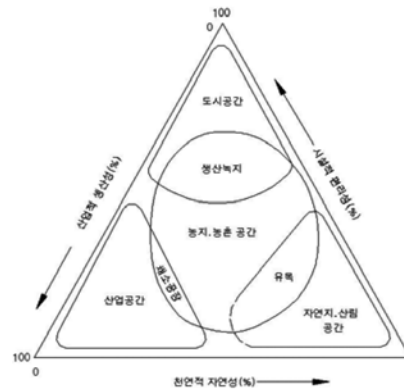
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청년이 여러 개의 통장을 꺼내며 은행에 들어간다. 그러면 은행 직원들이 나와서 인사를 한다. 이 청년은 알고 보니 은행의 우량고객이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농촌은 가난하다는 편견을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농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는 공익광고를 통해, 그리고 인기스타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를 통해 농촌홍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에서는 더 이상 국가의 경제적 이득만 생각할 것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즉,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인도의 경우 비록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중의 하나라고 한다. 이렇듯이 경제적 풍요가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안 중에 도시의 밀집된 공간에서보다는 농촌의 시야가 트인 곳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생태마을(Eco-village)의 조성이 국제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생태마을 유형에는 도시형, 준도시형, 농촌형 등 3가지 형태가 있으며, 도시형, 준도시형 위주의 미국 생태마을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유기농업을 중시하는 농촌형 생태마을이 주로 조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화, 함양, 아산, 산청, 홍성 등에서 농촌형 생태마을이 추진되고 일부에서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농촌형 생태마을은 국민에 대한 환경교육의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농산물 직거래 장터로서, 그리고 환경보전형 농업을 영위하는 유기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21세기의 새로운 농

촌개발 모형이자, 주거모델로서 그 몫을 다하고 있다.

농촌은 자연과 도시공간과의 상호전달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더욱이 각각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광범위한 환경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그림).



<그림> 농촌의 위치(1996. 한국농공학회지, 김기성).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의 이유도 적지는 않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 일 년 동안 열심히 길러놓은 농산물은 생산자에서 도매자, 소매자에게로 넘겨져 결국엔 소비자에게 오기 마련이다. 이렇듯 농산물은 여러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부가가치가 증가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농산물을 살 때 비싸다는 생각을 하지만 생산자인 농민들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에서 농산물은 여러 단계에 걸쳐 팔려지기 보다는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되는 것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이런 판매를 위해서는 농민들이 자신들의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파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한 사람이 만드는 직거래 장터보다는 여러 명의 농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단체나, 조합을 형성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접촉을 시도하며,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조합은 어쩌면 농협과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농협보다는 좀 더 능동적이며,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농가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단지 소득(직업)이란 이유 때문에 도시의 빈민층이 되더라도 머물던 사람들, 도시 속에서 일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여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 또는 도시의 높은 집세나 물가에 비하여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더 나아가 농촌생활을 선호하지만 소득원이 없어서 주저하던 농촌으로 가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렇듯 자본 중심사회에서의 농촌의 경쟁력은 돈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농산물 유통의 정착을 위해 정부 농협 농민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소비를 파악할 수 있는 농업정보시스템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여러 가지 시스템 개발하기에 앞서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강력한 입장표명과 실천이다. 각 대학에 농촌 지역개발학과를 신설하게 압력을 넣기도 하고 농촌을 살리는데 공헌하는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제도가 세워지는 데는 각종 이해관계들이 얽히게 되는데 농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정부의 강력한 입장 표명들 아래 사회분위기가 농촌 환경으로 모아져 간다면 정부는 세부적인 연구 지원과 함께 농촌 살리기의 각 프로그램들과 의견, 대안들을 수집하여 국토개발 5개년 정책과 같은 농촌 살리기 관련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가들은 자본이 농촌 살리기 프로젝트에 투자될 때 이익이 남는다는 것을 분석한 뒤 시장경제의 흐름을 다시 한 번 바꿔놓을 수도 있다. 물론 이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경제적 발전대책이 가장 핵심이 되

어야 하겠지만 문화적·예술적·교육적 여건 조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농촌과 연계시킨 생명공학분야도 같은 원-원 전략으로 더욱 더 발전할 것이다. 농촌의 관광 프로젝트에도 정부는 적극적 지원을 하며, 구체적 계획 및 실행은 지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게 하되 각종 제제들(구체적인 예로, 농촌지역의 문화재의 특색에 맞게 농촌건물 디자인 및 색상 선정의 제도화 등)을 개발하여 국토의 전체적인 한국적 미를 뽐내게 한다던지, 지역의 특수화된 미를 선보이게 하는 등의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도시민과의 경제적 교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근교 도시민들과 농촌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쉬는 날 도시민들이 가까운 농촌으로 가서 채소, 과일을 직접 재배, 수확하게 하고, 그 값을 받는 방법이다. 먼저 농지의 면적에 따라 계약금을 내고, 무엇을 재배할 것인지는 도시 소비자가 결정한다. 그리고 간간히 소비자가 찾아와 키우는 농작물을 돌보고, 확인한다. 농민은 기르는 방법이나, 세부적인 참고사항을 가르쳐주고, 소비자가 바빠서 오지 못 할 때에는 대신 관리를 해준다. 그러나 농작물의 수확결과는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수확이 작건 크건 해당되는 면적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소비자가 갖게 된다. 작물의 생육 과정 동안 소비자가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소비자는 생산물이 농약을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고, 그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물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는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농업을 경영하는 것이다. 농약을 주고 싶은 소비자는 농약을 주어 벌레 먹지 않은 농작물을 수확하고, 또 벌레 먹고 수확량이 작더라도 농약을 주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농약 없이 재배하도록 한다. 그 대신 생산결과는 소비자가 책

임지기 때문에 농민의 위험부담은 전혀 없다. 농민은 그저 소비자에게 이미 분배된 농작물을 관리해주고, 재배 방법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위의 정년퇴직하신 여유로운 가정의 어른들이 소일거리를 찾아 취미로 농사를 지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다. 또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수요가 클 것이다. 주요일제가 시행되면서 가족단위로 여가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농사체험은 자녀에게 교육적인 효과와 가정의 경제에 도움을 주는 이중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까운 도시민과 농촌을 연계시켜 준다면 도시민들의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신 농지를 빌려주는데 저렴해야 하고, 농민들이 관리차원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어야겠다. 물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 바로 녹색관광(green tourism)을 주도하여야 한다. 도농교류를 통해 도시민을 불러들인다면 농촌의 정주민구는 줄어들지만 상주민구는 늘릴 수 있다. 지금까지 농촌은 농산물을 생산해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었다. 이제 반대로 소비자인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찾아와 쉬고 체험하며 농산물을 사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행히 도시민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어 도시민들은 지금까지의 생활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와 여유 그리고 활력을 회복하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농촌에게 더 할 수 없이 좋은 기회이다. 농업의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농촌지역을 거주 공간,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아름다운 농촌 공간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바로 농촌이라는 하드웨어에 관광서비스란 소프트웨어를 접목하

여 농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도시민들은 답답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더욱 강하게 표출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아름다운 경관, 문화자원, 농산물은 도시와는 다른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농촌관광 활동은 대규모 리조트와는 달리 자연과괴를 최소화하면서 농촌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 평화로움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이어야 한다. 즉, 도시민들이 농촌의 가정에 체류하면서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그 지역사람들과 교류하며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을 말한다. 농촌주민이 주체가 되어 소규모 투자로도 다양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농촌개발을 촉발하고 유지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녹색관광의 목표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증대, 관광객 만족, 깨끗한 농촌 환경의 유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발방향은 '자연환경 + 특산물 +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도시민을 불러들이는 지속가능한 농촌 활성화 전략이어야 한다. 숙박중심의 단순 관광 사업에서 농산물의 가공과 판매로 연결되는 복합경영으로 전환해야 하며, 마을단위의 사업 추진으로 다양성을 갖추고 투자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생활환경과 생산 활동을 체험 상품으로 개발하여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다. 풍부한 자연이 남아있는 농촌에서 자연과 문화와 사람들이 교류를 즐기는 녹색관광은 농촌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대규모 개발을 하지 않고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마음의 접촉, 사람간의 교류를 중시하는 개발을 하자는 것이다. 지역민이 주체적으로 임하고 '사람과 지역이 공생하는 농촌'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주민에게는 소득증대뿐만 아

나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하고 생활문화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도시주민에게는 일과성 즐거움이 아니라 농촌의 생활과 문화를 맛보고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자연과 접촉함으로써 인간성을 실현하는 자기실현 여행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는 농촌 활성화를 위해 문화적, 정치적, 보건, 위생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시범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촌의 특산 문화 및 농촌관광의 홍보를 잘 해주고,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농촌의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원해주며, 농촌과 관련된 정치적,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농촌의 민간조직을 지원해주며, 교육적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농촌의 산업발달을 위한 연구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사항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다. 위의 사항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거나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허점이 비일비재하고 제대로 시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여러 연구와 논문에서도 많은 대책들을 나열되거나 제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해결된 문제는 거의 없는 듯하다.

여가 활동의 기회가 증가되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 농촌은 농업으로만 소득을 증가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관광 사업에 한번 눈을 돌려보아야 한다. 관광 사업은 적은 자본으로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활성화된 강원도 내린천의 래프팅 문화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 자본이 없는 농민들은 이 사업에 거의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서울의 거대 자본가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농촌

의 관광개발의 좋은 예가 아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소비활동이 활발해져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 그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 유출되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의 능력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일단 농촌을 지역 단위로 연계시킨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체계적으로 연계시켜주고, 각 지역별로 특징을 연구하여 찾아낸다. 그 특징적인 요소를 개발시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킨다.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시·군에서 개체된 축제는 지역의 자연적·사회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유형과 지역의 자원과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개최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후자의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 후자인 “함평나비축제”는 아, ‘그거’하면 ‘어디’하고 떠오르도록 홍보하였다. 이처럼 그런 요소들이 겹치지 않도록 각 지역의 특징을 대표하는 요소를 잘 선정하고,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및 시스템을 개발한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고, 행정 편의주의로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각 지역의 특징은 지역민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성의있게 수렴해야 한다. 또한 관광사업의 참여자는 반드시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광가이드로 지역주민 중 합당한 사람을 고용하고, 관광 수입의 얼마를 할당하여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한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고, 또한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호의적이며, 친절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관광객도 기분이 좋아 다시오는 등의 긍정적인 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아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의 홍보가 지원되어야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관광개발을 위해 따로 지원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모든 농촌이 관광지로 개발될 수는 없다. 우선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또 관광객이 묵어갈 수 있는 숙박시설과 화장실 시설 등의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촌의 관광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 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활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농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농민들의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공해주고, 필요하면 가르치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는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고, 나눠주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도록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또한 공동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관광사업과 같은 것으로 이익이 남았을 때는 주민들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며, 최근의 정보를 빨리빨리 취득하여 분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기울이지 않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농촌관광을 추진하거나,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농촌관광을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농촌관광경영자의 경영능력과 전문적인 리더십, 또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추진력이 뛰어나야 한다. 또한 정보를 획득함에 있어 신속해야 하고, 주민들끼리 화합이 잘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농촌은 농업소득에만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선진국 농촌은 농업 외 소득이 농업소득의 2~3배 이상되고 있다. 농업 외 소득은 농촌을 단순한 농산물의 생산 장소로만 여기지 않고, 생태체험, 농촌 문화 체험, 휴양, 관광, 교육 등 복합적 기능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유럽의 성공한 생태마을이 유기농산물 생산과 연결되고, 환경생태 교육장으로 활용되며, 생태관광과 접목되어 있음을 거울 삼아야 한다고 사료된다. 특히 농촌문제에 대한 성공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영국의 농촌은 도시로부터의 인구유입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농촌에서 과잉으로 생산되는 농산물문제에 직면하여 농촌 토지의 용도를 삼림의 확장,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삼림지와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지의 보존(preservation)에 노력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1960년대부터 산업화 과정이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농촌은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환경오염의 피해자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환경오염의 피해자이면서 환경에 대한 가해자의 입장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비료, 농약 등의 사용은 이미 심각한 비점오염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단체는 농촌의 무분별한 개발상황을 막아야 한다. 농촌의 개발을 막는 것이 잘 사는 농촌으로 가는 길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잘사는 농촌, 다시 살고 싶은 농촌은 ‘농촌’이지 ‘도시’가 아니다. 농촌은 농촌다워야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잘살아보자는 일념 아래 의기투합한, 그러나 아직은 환경에 대한 의식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농민들을 설

득하며, 교육을 펼쳐 나아가야 할 것이다. 농촌 환경을 세계적인 생태마을로 만들 계획에 있는 마을이라면 전문가의 자문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때 환경단체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농촌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농촌의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면 환경단체도, 농촌 주민들도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것이겠다.

환경단체에서 농촌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비슷한데, 농촌을 생태농촌으로 만드는 것이다. 농촌을 도시로 변화시킬 필요는 없으며, 농촌 순수 그 자체를 근본으로 보고 이러한 농촌 속에서 도시 속에서만 살아온 학생들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도시에서만 살아본 학생들도 꽤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아이들은 농촌에서는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심지어 밥으로 먹는 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환경단체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농촌 환경을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여 직접 벼를 베어보기도 하고, 과수원에서 포도나 딸기도 따 보게 함으로써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농촌의 변화준비단계에서는 변화 중, 변화 후 유지단계에서도 지속적인 농촌과의 교류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정책적으로 농촌의 발전 프로그램, 예를 들면 관광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그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단체에서 하나의 환경단체와의 지속적인 연결을 갖게 제도화하는 장치를 설치해 주어야 할 것이다. 홍보 마케팅에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하는 농촌로서는 재방문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와 만족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번 찾은 도시민들이 다시 찾고, 다시 찾은

고객들이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환경단체는 농촌의 환경을 내 것처럼 관리 및 감시해야 하겠다.

환경단체의 역할은 참으로 다양하다. 멸종생물종을 보존하는 일, 또 정부의 정치적 행위를 감시하는 일, 환경교육에 관련된 일 등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그 중에서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일 또한 이들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환경단체에서 농촌체험활동, 농사체험, 습지 체험, 환경교육 등을 주도하며 농촌과 연계되어 있다. 이들이 농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면 하는 일은 농촌의 교육이다. 농민들을 교육시켜 사회적, 법적 제도에 밝게 해주고, 또한 농민들이라고 모두가 환경친화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환경의 중요성과 실행방안 및 그 밖의 환경적인 지식을 알게 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체험활동을 주체할 때 농민들을 많이 참여하여야 한다. 어차피 농사체험 같은 경우도 농민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환경단체가 중간에서 농민들과 도시민 또는 농민들과 교육받으러 온 아이들, 이 둘 사이를 잘 이어주어 호의적인 인식을 갖게 해준다면 사람들은 농촌이라는 곳을 친근하게 느낄 것이다. 또한 아이들이나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의 환경단체 중 일부는 마치 환경과 지역 주민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듯하다. 지역 주민들도 그 지역의 환경을 구성하는 한 구성원이다. 그런데 지역에서 특이하거나 희귀한 생물이 출현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생계에도 제제를 가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 이러한 활동을 오히려 주민들의 반감을 사기 쉽다. 따라서 환경단체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려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환경도 보존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희

귀하고 특이한 환경을 살려 자연을 공원화하고, 희귀 생물을 인공적으로 사육, 대량 번식시켜 체험학습장을 만들고 그것을 상품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단 이런 방법들은 물론 그 분야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농촌의 주민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부 및 지방단체의 노력 또한 허사가 되는 것이다. 녹색관광으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변화와 희망'이 동시에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 비로소 지역의 자연이 살고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나부터 변해보자. 내가 한번, 나부터 한번 해보자. 남은 안 하더라도 우리 마을부터 해보자'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간단한 것,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꾸고 변해야 한다. 도시민을 불러오자고 큰 돈 들여 대형 건물부터 짓고 보자는 태도는 위험하다. 도시를 모방하고 도시의 관점에서 보는 안 된다. 흔히들 쉽게 권하는 민박조차 평생 농사만 짓던 농민들에게는 벽찬 벤처 사업이다. 주민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것, 누구도 모방하기 어려운 것을 살려 나가는 정신이 필요하다. 「세계최고, 최초」가 아닌 작고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뿐인 것(only one)」을 만드는 것이다. 농촌마을도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마을도 상품'이라는 생각으로 마을자체를 매력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보자. 특산물과 음식 등 상품을 개발하고 여기에 감동적인 서비스를 덧붙여 부가가치를 높인다. 유기농산물 생산, 농사체험, 작은 축제 등등 도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의 구매, 자연체험, 휴양 등 다양한 목적으로 농촌에 관심을 갖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주민들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물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지역문화를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누가, 왜 우리 마을을 찾는가? 찾아오는 도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도시민들은 지역문화 체험기회 제공, 관광객은 '진짜'를 경험하고 맛보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특산물 하나를 개발해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수입농산물을 포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추를 따는 것도 인삼을 캐는 것도 이들에게는 유쾌한 체험이 될 수 있다. 또한 쾌적한 마을 가꾸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와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여유롭고 평온한 분위기가 연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촌마을답고 오지마을답게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가꾸기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시민들과 인연을 맺고(1사1촌 행사 등이 그 예가 된다) 그들이 꾸준히 마을에 관심을 갖고 다시 찾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농촌 가꾸기를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안목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눈을 넓히고 도움을 받으려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한다. 앞서 나가는 지역을 견학하고 사람을 찾아 다녀야 한다. 민박을 할 마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체험해 봐야 집 떠난 관광객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특산물의 개발과 판촉활동에 이르기까지 배우고 익혀야 할 지식은 너무도 많다. 철저히 분석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의하고 멀리, 크게 보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창의적인 생각, 아이디어를 모으려면 주민들끼리 단합하는 마을의 분위기가 좋아야 한다. 상호불신은 최대의 적이다. 일단 결정되면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땀 사람, 걸을 사람, 앓을 사람 각자 능력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되 남이 뛰고 걷는데 방해하진 말아야 한다.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생활문화를 즐기는 사람과 마을,



<사진> 농촌의 주택.

문화가 만들어지면 관광객은 저절로 오게 되는 것이다.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즐겁게 사는 모습, 매일 매일 생기 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자. 아직도 농촌마을에 남아있는 인간미와 인정, 맑은 물과 공기는 최대의 자산이다. 도시민들은 뭘지 모르지만 훈훈하고 따뜻한 느낌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그런 곳이라면 기꺼이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 떠나는 농촌으로 방치할 것인가, 다시 찾는 농촌을 만들 것인가의 선택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변화 의지에 달려 있다.

도시민들은 농촌다움이 보존된 농촌에 머물면서 도시의 관광지와는 다른 무엇, 즉 그곳만의 생활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기고 싶어 한다. 다음 표와 같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농업, 농촌 환경, 농사체험, 세시풍속, 절기문화 등을 상품화 하는 것이다(표). 지역특성에 맞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주변의 다

<표> 농촌의 체험과 활용자원

체험 학습	자원
농사	논, 밭, 과수원, 목장 등
농촌의 자연	야산(앞산, 뒷산), 들판, 실개천(소하천), 연못, 숲, 골짜기, 농로, 수로 등
농촌의 역사	민속놀이, 민속설화, 전설, 절, 사당, 서낭당, 당나무, 서당, 향교, 전통한옥 등
농촌의 문화	전통적인 생활 인제, 무형인간문화재, 전통적 식문화와 인제 등

<표> 충남 농촌 문화체험 프로그램(충남농업기술원, 최선희)

시군	계	당일	2일 이상	주요내용
천안	4	4	-	포도, 고구마, 표고버섯 수확 체험
공주	5	5	-	판소리배우기, 알밤 줍기, 백제문화탐방
보령	7	7	-	양송이, 무화과 따기, 전통매주, 손두부 체험
아산	11	8	3	다라미 장 담그기, 옥수수하모니카불기
서산	9	6	3	참샘골호박농장, 생강캐기 체험, 한과 만들기
논산	5	5	-	딸기 따기 및 짬가공체험, 밤고구마 수확
금산	6	5	1	갯잎따기 체험, 인삼캐기, 인삼요리체험
연기	5	4	1	농촌생활체험, 복숭아 수확
부여	5	4	1	시골장, 곤충 및 야생조류관찰
서천	8	7	1	갈대여자와 철새남자, 한산모시체험
청양	20	11	9	고추, 구지자 체험, 화전만들기, 천염염색체험
홍성	5	4	1	보리고추장체험, 친환경농업체험
예산	2	1	1	사과수확 체험, 맑은 별 마을 체험
태안	7	6	1	생강 수확체험, 벗가릿대세우기, 염전체험
당진	4	4	-	바다약초 체험, 짚풀공예, 황토염색
합계	103개	81	22	

양한 자원과 지역연계를 형성하여,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풍요로운 마음과 농촌의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나

나 스스로도 대개는 도시 속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지내지 무슨 교통도 불편하고 별래들도 많으며, 문화생활도 할 수 없는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생각한 적이 많다. 하지만 농촌을 직접 가보게 되면 농촌의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뻐꾸기 소리, 비온 뒤의 맑은 무지개가 뜬 모습, 붉게 하늘을 물들인 석양 등을 생각해 보면 시골이 한없이 그리워진다. 사람이 자연을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기존에 자연을 접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 자연과의 추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개인의 농촌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농촌을 많이 접해 보도록 해야 한다. 굳이 그 곳에서 살수없는 이유가 있다면 주말을 통해서 농촌에 있는 자연들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에 어쩌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만큼 본질적인 것이 있을 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농촌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농촌에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다.

‘관심을 갖는다’라는 말로는 부족한 것이다. 신중하게 생각하며 행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전반적인 농촌부흥운동에 동조하고 네티즌으로써 비판하기도 하며 좋은 아이디어 공모에도 개인적 의견을 피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 농촌 환경 또는 농업 분야의 전공자,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개인이 끈기 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농촌 살리기에 참여적인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여러 단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농촌의 일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작게는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한다든지, 더 나아가 실현 가능한 일로는 현직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다양한 농촌문화 체험활동을 교육하고,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양한 농촌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농촌의 생태를 연구하는 등의 개인적 관심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며, 학교 교직원의 일원으로서 지역과 학교가 같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지금은 소비자로서 농촌의 친환경적 농산품을 구매하면서 농민들과 신뢰를 주고받으며, 더욱더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주위 사람에게 홍보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농촌의 농산품이라고 해도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눈감아주기 식 보다는 바로 시정하게 하여 많은 고객들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과연 나는 농촌에서 살 수 있을까? 고된 육체적 노동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주거지가 농촌에 있다면 어떨까? 나는 농촌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제일 효과적인, 또 행동의 변화를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환경단체에 무엇인가를 거창하게 건의하는 것 보다는 소박한 것이라도 내 자신에게 건의하여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신속하기 때문이다.

맺는말

전국토의 균형 있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

해서는 건강한 '정책'의 철학을 기반으로, '유통', '교육', '교통', '문화'가 구석구석까지 연결이 이루어지고 소통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발전가능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찾아내야 한다. 모든 곳이 다 도시화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과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아주 깊은 소외지역까지 '유통'과 '교육', '문화'를 연결시켜 줄 수 있다면 광역시와 인근 도시를 기반으로 한 지역네트워크 체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해당 지역 환

경단체, 개인(나)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주인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가지고 자기역할에 충실하고, 정부는 총괄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자리 잡아나가며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 이상 농촌이란 단어가 문제라는 단어와 단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멋진 경관과 상쾌한 공기, 신선한 음식의 향, 깨끗한 주변 환경, 정다운 이웃 간의 담소와 여유로운 삶 속의 여가생활을 꿈꾸며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